

Session III. Free Paper 2

식도, 후두, 기관을 침범한 재발성 유두상 갑상선 암 치험 1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음성언어의학연구소

최홍식, 서형석, 홍준표, 권순호, 송기재, 천제영

본 증례는 18년 전 유두상 갑상선 암으로 우측 갑상선 엽 절제술 받고, 지내오시던 중 재발 의심되어 03년 6월 좌측에서 시행한 세침흡인검사상 유두상 갑상선 암 보고 되었으며, 03년 10월 131 mCi 방사선 요오드 치료 받으셨으며, 그 후 갑상선 억제치료 받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 후 특이소견 없이 지내던 중 1 개월간의 쉼 목소리와 연하곤란증을 주소로 05년 5월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TG 2278, Anti-Tg Ab <20, Neck CT상 왼쪽 갑상선에 2.5cm 종양이 기관, 갑상연골, 식도를 침범하는 양상보이며, 왼쪽 경부 III, IV에 전이성 임파선 소견 보였습니다. 직접 후두경 검사상 왼쪽 성대 마비 소견을 보였습니다.

환자분 05년 6월 완전 갑상 절제술 및 부분 인두 식도 절제술, 왼쪽 경부 절제술 시행 받았으며, 수술방에서 종양이 식도의 내부를 80%정도 막고 있었으며, 기관과 윤상연골을 침범하는 양상이어서 En-bloc 제거 후 단순 문합 시행 하였습니다.

수술 후 9일째 상처부위 부풀어 배농 절개 시행하였으며, amylase/lipase상 11706/38 보도 되어 식도 천공, 피부 식도루 의심되어 시행한 esophagography상 수술 문합부위 천공 의심 되어 금식하면서 경과관찰 하였습니다. 수술후 34일 식도 천공 막힌 소견 보여, 연식까지 시행 후 퇴원하였습니다. 추후 방사선 요오드 치료 다시 시행하실 계획입니다.